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경 님(동아대학교 교수)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비롯한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은 두드러지게 표면화, 과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저연령화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공격행동은 상당히 지속적이며 아동기의 공격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반사회적행동 및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증재는 빠를수록 효과적 이므로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증재를 모색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어떠한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공격행동에 취약하게 하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공격적인아동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의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행동(신체·언어공격,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개인 변인으로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및 게임중독성향을 가족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을 선정하여 아동의 공격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관계와 상대적 중요성을 성별에 따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의 4개 공립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에 재학중인 642명의 아동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공격행동 척도, 자기통제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게임중독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및 학대경험 척도 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 요인 분석,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언어 공격 및 분노를 더 많이 보인다. 둘째, 남아와 여아모두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언어 공격 및 분노를 더 많이 보인다.또한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언어 공격 및 분노를 더 많이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적이고 통제적 일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신체·언어 공격 및 분노를 더 많이 보인다. 또한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 학대를 많이 경험 할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분노를 더 많이 보인다. 넷째, 남아와 여아의 신체·언어 공격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자기통제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분노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자기통제였으며 그다음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 여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신체·정서 학대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아동의 낮은 자기통제는 신체·언어공격 및 분노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여아의 경우 신체·정서 학대경험이 분노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